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3년제 학제 개편에 관한 연구

† 김재근 · 오현미 · 이영순
계명문화대학 식품영양조리과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into the Three-Year Period of Education of th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 Junior College

† Jae-Keun Kim, Hyun-Mee Oh and Young-Soon Lee
Department of Food, Nutrition & Cuisine, Keimyung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cessity for the extension of education and the desirable educational period of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 junior college. Questionnaire was answered by the students, professors, dietitians, and the graduates. The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s: 52.1% of the subjects recognized that 2 year-period of education is too short, and professor group felt significantly shorter than any other groups. Both groups of professors(45.7%) and dietitians(43.5%) had more significantly recognized the necessity for the extended period of education than the groups of students(23.0%) and the graduates(21.5%) As the causes of the necessity for the extended period of education, 48.6% of the subjects answered 2 year-period of education is too short to study and practice on the major, and professor group highly recognized that the students need more time to study and practice for the major than time to prepare for the dietitian's certificates($p<0.001$). Both Groups of professors(77.8%) and the graduates(65.1%) had significantly higher answer than groups of dietitians(56.1%) and the students(56.5%) to the question that 3 year-period of education is proper($p<0.001$). Therefore the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to the three year-period of education as soon as possible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of the dietitians, for the higher acquisition of dietitian's certificate, for the increase of field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s creativeness and for the various courses after the graduation.

Key words : the educational period, the extension of education, dietitians, certificate, the various courses after the graduation

서론

현행 식품영양과의 2년제 수업으로는 최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급식과 외식산업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¹⁻³⁾. 정보화

와 경제 성장으로 외식과 급식 산업은 21세기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이며 특히, 풍요로운 생활 여건 속에서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급식 산업 경영과 영양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 Corresponding author : Jae-Keun Kim, Keimyung College, 700 Sindang-dong, Daegu 704-703, Korea.
Tel:+82-53-589-7823, Fax:+82-53-589-7821, E-mail: kjk639@km-c.ac.kr

있다²⁻⁴⁾. 그러나 현행의 2년의 수업과정으로는 국가의 영양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만으로도 부족하며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정보화 수준이나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의 개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수업 연한의 부족과 더불어 해마다 영양사 국가시험의 난이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2년제 학생들의 평균 합격률은 46.1%로써 4년제 학생들의 84.1% 보다 현저히 낮으며 타 보건계열 3년제 학과의 보건의료인 국가 시험 결과와 비교해 보아도 합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⁵⁾.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영양사가 2006년부터 영양 교사로 되므로 교직 과목의 이수율 위해서도 2년제로는 어려우며 특히 보건소의 영양사나, 병원의 임상 영양사는 4년제 출신만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3년제로의 전환 시 좀 더 양질의 교육이 예상되며 어려워지는 국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학제 연장이 필요하다. 미국의 영양사 제도는 주로 4년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인턴 과정을 거쳐야 국가 자격 고시를 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영양사를 2년제와 3년제로 구분하여 일반 영양사와 관리 영양사로 구분하여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동일한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⁶⁻⁹⁾.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영양사 면허 취득률 향상과 산업 현장에 적합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우수한 건강관리, 급식관리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현행 2년의 교육과정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1,10-13)}. 또한 4년제 대학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 보건계열 3년제 학과와 같은 학제인 3년제로의 전환이 요구되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식품영양 관련과의 3년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생과 졸업생, 교육 관계자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전문대학 2년제 식품영양 관련과의 3년제로의 교육 연장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교육 연한 등의 인식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조사 대상자는 전국의 식품영양 관련과 학생 및 졸업생, 교수 및 교육 관계자, 산업체, 병원, 학교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로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성실하게 응답한 502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6월에서 2003년까지 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문대학 2년제 식품영양 관련과의 현 교육 연한에 대한 인식, 3년제로의 교육 연장의 필요성, 교육 연장이 필요한 이유,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바람직한 교육 연한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각 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전체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학생, 교육 관계자, 졸업생, 영양사 등 대상자 집단별로 각 조사 항목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및 2년제 식품영양 관련과의 현 교육 연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조사하였다. 2년제 현 교육 연한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은 '너무 짧다', '짧다', '적절하다', '길다', '잘 모르겠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2) 3년제 교육 연장의 필요성, 교육 연장이 필요한 이유

전문대학 식품영양 관련과의 3년제 교육 연장의 필요성 그리고 교육 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년제 교육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3년제가 더 좋을 것 같다', '필요 없다', '잘 모르겠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연장에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2년으로는 필요한 식품영양 관련 지식을 공부하거나 실습하기에 너무 짧다', '2년으로는 영양사 자격 시험 준비에 모자란다.', '4년제 대학과의 학력 차 감소', '사회나 산업체에서의 인식 향상', '기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 3년제 교육과정으로 전환 시 장점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육 연한을 3년제로 전환할 경우 대상자들이 장점들 중에서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장점들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장점을 선택하기 위한 항목은 '영양사 면허 취득률과 취업률 향상', '실습 교육 기회 확대로 현장 적응력이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다양한 교과목 개설에 따른 진로의 폭 확대', '심도 있는 교육 과정에 따른 영양 전문가 양성', '졸업 후 18학점 취득 시 대학원 진학 자격 부여', '급식 산업 경영과 영양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에 부응'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시된 항목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4)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바람직한 교육 연한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바람직한 교육 연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 항목은 '2년', '2년 6월', '3년', '잘 모르겠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5) 자료 처리 및 분석

모든 조사 결과는 SAS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설문 결과는 대상자의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대상자 간에 있어서 설문 결과의 유의성 검정은 χ^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분포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91명(18.4%), 여자가 405명(81.6%)이었고 대상자의 분포는 학생이 209명(43.0%), 교육 관계자 90명(18.5%), 영양사 41명(8.4%), 기타 졸업생 146명(30.1%)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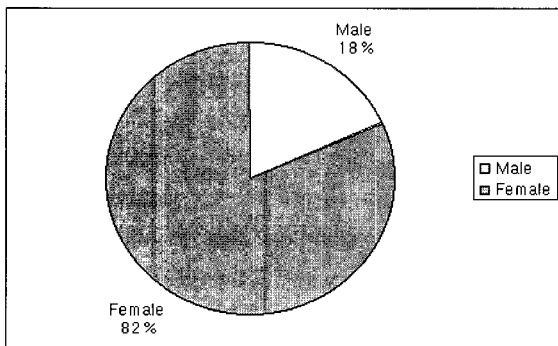


Fig. 1. Sex distribution of su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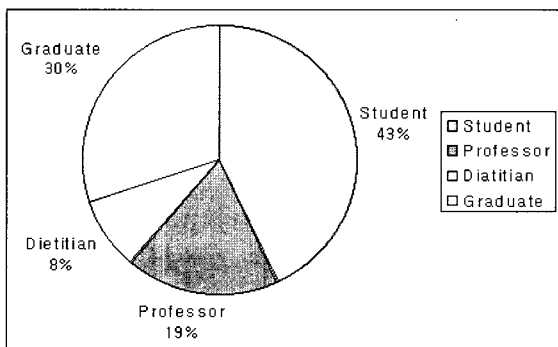


Fig. 2. Occupation distribution of su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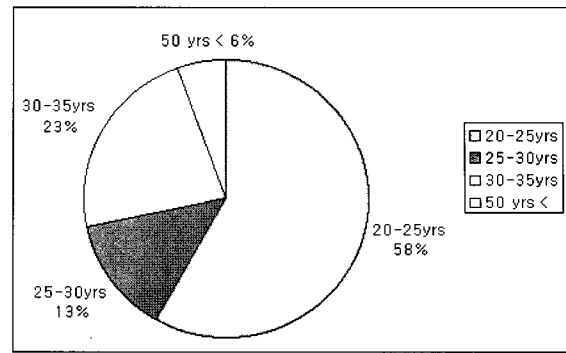


Fig. 3. Age distribution of subjects.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8.4세였으며 대상자별 평균연령은 학생 21.2세, 교육 관계자 44.9세, 영양사 26.9세, 졸업생 29.9세였다. 남자의 평균 연령은 34.9세, 여자는 26.9세였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359명(71.5%), 30~50세가 115명(22.9%), 50세 이상이 28명(5.6%)이었다.

대상자의 직업별 분포에서 영양사의 근무 형태별 분포(Table 1)는 산업체 14명(40%), 학교 5명(14.3%), 병

Table 1. Occupation distribution of subjects

Subjects	N	%
Dietitian		
Industry	14	40.0
School	5	14.3
Hospital	11	31.4
Social welfare institution	5	14.3
Student		
Freshman in college	127	39.6
Sophomore in college	115	35.8
Students in three years college	79	24.6
Professor		
College	92	88.5
Three years college	12	11.5
Graduate		
The students preparing nutritionist	8	44.4
Student acquired the certificate after graduating college	6	33.3
Student acquired the certificate after graduating university	4	22.2

N : Number of the subjects.

원 11명(31.4%), 사회복지 시설 5명(14.3%)이었으며 재학생의 분포는 2년제 학과의 1학년 127명(39.6%), 2년제 학과의 2학년 115명(35.8%), 3년제 재학생 79명(24.6%)으로 나타났다. 교육 관계자의 분포는 2년제 근무가 92명(88%), 3년제 근무가 12명(11.5%)이었으며 졸업생 중에서 영양사 시험 준비생은 8명(44.4%), 2년제 졸업 후 영양사 면허 취득자는 6명(33.3%), 4년제 졸업 후 영양사 면허 취득자는 4명(22.2%)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Area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Area	N	%
Seoul	43	8.7
Busan	34	6.8
Daegu	140	28.2
Kwangju	47	9.5
Kyungkido	73	14.7
Chungbuk	10	2.0
Chungnam	3	0.6
Kyungbuk	27	5.4
Kyungnam	17	3.4
Jeonbuk	35	7.0
Jeonnam	11	2.2
Kwangwondo	28	5.6
Taejeon	19	3.8
Incheon	10	2.0

N : Number of the subjects.

2. 전문대학 식품영양 관련과의 2년제 교육 연한에 대한 인식

전문대학 2년제 식품영양 관련과의 현 교육 연한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전체 대상자들의 52.1%가 현 교육 연한이 '짧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하다'라는 의견은 전체의 25.9%로 조사되었다. '너무 짧다'라는 의견도 13.4%로 조사되었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은 7.2%, '길다'라는 의견은 1.0%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상당수인 65.5%가 현 교육 연한에 대하여 대체로 '짧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교육 연한 연장의 필요성을 연구한 소 등의 연구¹⁾에서도 전문대학 교수, 현직 영양사 및 재학생 대부분이 현행 교육 연한 2년이 짧다고 대답하였다.

대상자별로 현 교육 연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유의적인 차이($p < 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짧다'라는 의견은 영양사들이 21.9%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 관계자들이 15.6%, 학생이 12.9%, 졸업생들이 10.3%로 나타났다. '짧다'라는 의견은 교육 관계자들이 6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영양사들이 56.1%, 졸업생들이 48.0%, 학생들은 46.9%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라는 의견은 졸업생이 34.3%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들이 25.8%, 영양사들이 21.9%, 교육관계자들이 1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2년제 식품영양 관련과의 현 교육 연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교육 관계자들이 교육 연한 연장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관계자들이 2년이라는 짧은 교육 연한 내에서 4년제 대학과 동일한 교과 과정 이수 및 영양사 국가시험까지 대비하기에 교육 연한의 부족을 더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3. The recognition on the period of education of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N(%)

Item	Student(N=209)	Professor(N=90)	Dietitian(N=41)	Graduate(N=146)	Total(N=486)	p-value
Too short	27(12.9)	14(15.6)	9(21.9)	15(10.3)	65(13.4)	0.0004
Short	98(46.9)	62(68.9)	23(56.1)	70(48.0)	253(52.1)	
Proper	54(25.8)	13(14.4)	9(21.9)	50(34.3)	126(25.9)	
Long	3(1.4)	0(0.0)	0(0.0)	2(1.4)	5(1.0)	
No idea	26(12.4)	0(0.0)	0(0.0)	9(6.2)	35(7.2)	
No answer	1(0.5)	1(1.1)	0(0.0)	0(0.0)	2(0.4)	

N : Number of the subjects.

3. 전문대학 2년제 식품영양관련과의 3년제로의 교육연장의 필요성

전문대학 2년제 식품영양 관련과의 3년제로의 교육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Table 4).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3년제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전체 의견 중에서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그 다음(27.1%)으로 나타났으며 ‘필요 없다’라는 의견과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각각 11.4%와 11.2%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76.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므로 학생, 교육 관계자, 졸업생, 영양사 모두 교육 연장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집단별로 3년제로의 교육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대상자별로 유의적인 차이($p < 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교육 관계자와 영양사들에서 각각 45.7%와 43.5%로 나타나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과 졸업생들은 각각 23.0%와 21.5%로 나타나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3년제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은 학생과 졸업생들이 각각 51.7%와 55.6%, 교육 관계자와 영양사들은 각각 35.7%와 30.4%로 나타나 학생과 졸업생보다 교육 관계자나 영양사들에서 3년제로의 교육 연장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모든 대상자 집단에서 70%를 넘으므로 교육 연한 연장의 필요성은 모든 대상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현행의 교육 연한 2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1,10,11,14}. 소 등¹⁾은 현직 영양사의 학력 분포 상태에서 전문대학 출신 영양사의 수가

4년제 대학 출신보다 훨씬 많으므로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육의 성과가 영양사 제도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교육 연한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4. 전문대학 2년제 식품영양 관련과의 3년제로의 교육 연장이 필요한 이유

교육 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전체 대상자들의 의견 중에서 ‘2년으로는 필요한 식품영양 관련 지식을 공부하거나 실습하기에 너무 짧다’라는 이유가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2년으로는 영양사 자격시험 준비에 모자란다.’라는 이유가 13.8%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과의 학력격차 감소’ 때문이라는 의견이 6.4% ‘사회나 산업체에서의 인식 향상’ 때문이라는 의견은 4.9%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상당수는 식품영양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자격시험을 준비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등¹⁾의 연구에서도 교육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서 교수, 현직 영양사, 재학생 대부분이 충실한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외국 여러 나라들의 영양사 양성 교육 기관의 교육 연한은 2년, 3년, 4년, 6년 등으로 다양하며 교육기간 중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현장 실무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품영양과도 현장 실무교육 비중을 더 높이기 위해서 타 보건의료관련 학과들의 수업연한인 3년과 마찬가지로 교육 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 집단별로 교육연장의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인식 분석에서는 유의적인 차이($p < 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으로는 필요한 식품영양 관련 지식을 공부하거나 실습하기에 너무 짧다’가 이유인 의견은 학생과 졸업생들에서 각각 40.2%와 47.3%로 나타

Table 4. The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the extension of education of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into the three years college N(%)

Item	Student(N=209)	Professor(N=70)	Dietitian(N=23)	Graduate(N=144)	Total(N=446)	p-value
Necessary	48(23.0)	32(45.7)	10(43.5)	31(21.5)	121(27.1)	0.0259
Better	108(51.7)	25(35.7)	7(30.4)	80(55.6)	220(49.3)	
No need	26(12.4)	8(11.4)	3(13.0)	14(9.7)	51(11.4)	
No idea	25(12.0)	4(5.7)	3(13.0)	18(12.5)	50(11.2)	
No answer	2(0.96)	1(1.4)	0(0.0)	1(0.7)	4(0.9)	

N : Number of the subjects.

났으나 교육관계자와 영양사들에서는 각각 67.8%와 53.7%로 더 높게 나타났다. '2년으로는 영양사 자격시험 준비에 모자란다.'라는 의견에서도 학생과 졸업생, 영양사들은 각각 17.7%, 14.4%, 12.2%로 나타났지만 교육관계자들은 4.4%로 나타나 교육 관계자들은 학생이나 졸업생들보다 '영양사 자격시험 준비'보다는 '필요한 지식 공부와 실습'에 시간이 더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영양사 면허증 취득이 가장 중요한 목적. 이므로 영양사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관계자들과 직접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영양사들은 학교에 있을 때 영양사로서 필요한 지식을 더 배우고 관련되는 실무 능력을 겸비하여 졸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4년제 대학과의 학력 격차 감소'가 이유인 의견은

학생과 영양사, 졸업생들은 각각 9.1%, 9.8%, 4.4%로 나타났지만 교육관계자들 중에서는 '4년제 대학과의 학력 격차 감소'가 이유라는 의견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3년제로의 전환 시 장점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육 연한을 3년제로 전환할 경우 대상자들이 장점들 중에서 우선 순위로 선택한 장점들을 Table 6에 제시하였다. '영양사 면허 취득률과 취업률 향상'을 가장 우선 순위로 선택한 대상자들은 학생 29.1%, 교육관계자 54.2%, 졸업생 42.4%로 각각 나타났다. '실습교육 기회 확대'로 현장 적응력이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가장 우선 순위라고 선택한 경우는 학생 22.9%, 교육 관계자 24.2%, 영양사 66.7%, 졸업생 12.1%로 각각 나타났다. '다양한 교과목 개설에 따른 진로의 폭 확대'를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대

Table 5. The recognition of the causes of the necessity of the extension of education

N(%)

Item	Student(N=209)	Professor(N=90)	Dietitian(N=41)	Graduate(N=146)	Total(N=486)	p-value
Need to study	84(40.2)	61(67.8)	22(53.7)	69(47.3)	236(48.6)	
Need for the certification	37(17.7)	4(4.4)	5(12.2)	21(14.4)	67(13.8)	
Decrease of the difference from university	19(9.1)	0(0.0)	4(9.8)	8(5.5)	31(6.4)	0.0001
Improvement of the recognition	19(9.1)	1(1.1)	2(4.9)	2(1.4)	24(4.9)	
Etcetera	1(0.5)	2(2.2)	3(7.3)	0(0.0)	6(1.2)	
No answer	49(23.4)	21(23.3)	5(12.2)	46(31.5)	121(24.9)	

N : Number of the subjects.

Table 6. Merits in case of changing into three years college

N(%)

Item	Student(N=48)	Professor(N=24)	Dietitian(N=3)	Graduate(N=33)	Total(N=108)	p-value
Better for getting job	14(29.1)	13(54.2)	0(0.0)	14(42.4)	41(37.9)	
Better for cultivating professional men	11(22.9)	4(24.2)	2(66.7)	4(12.1)	21(19.4)	
The various courses after the graduation	5(10.4)	1 (4.2)	0(0.0)	7(21.2)	13(12.0)	
Better for cultivating dietitians	8(16.7)	6(25.0)	0(0.0)	3(9.1)	17(15.7)	0.0100
Able to enter the graduate school with getting 18 credits	6(12.5)	0(0.0)	1(33.3)	0(0.0)	7(6.5)	
Better for satisfying dietitians	4(8.3)	4(16.7)	0(0.0)	5(15.2)	13(12.0)	

N : Number of the subjects.

상자들은 학생 10.4%, 교육 관계자 4.2%, 졸업생 21.2%로 나타났으며 ‘심도 있는 교육과정에 따른 영양 전문기 양성’을 우선 순위로 선택한 대상자들은 학생 16.7%, 교육관계자 25.0%, 졸업생 9.1%로 나타났다. ‘졸업 후 18학점 취득 시 대학원 진학 자격 부여’를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대상자는 학생 12.5%, 영양사 33.3%로 나타났으며 ‘급식산업 경영과 영양에 관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에 부응’을 가장 우선 순위로 답한 대상자들은 학생 8.3%, 교육관계자 16.7%, 졸업생 15.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살펴볼 때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육 연한을 3년제로 전환할 경우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장점들 중에서 학생들은 ‘영양사 면허 취득률과 취업률 향상’ 항목과 ‘실습교육 기회 확대로 현장 적응력이 있는 전문 인력 양성’ 항목을 거의 비슷하게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관계자들과 졸업생들은 ‘영양사 면허 취득률과 취업률 향상’ 항목을 ‘실습교육 기회 확대로 현장 적응력이 있는 전문 인력 양성’ 항목보다 더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바람직한 교육 연한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바람직한 교육 연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Table 7) 대상자들의 과반수 이상인 62.9%가 ‘3년’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하였으며 ‘2년’ 그대로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17.9%, ‘2년 6월’이 7.2%,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9.1%로 나타났다. 소 등¹⁾의 연구에서도 바람직한 교육 연한은 3년이 적절하다고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응답하였다.

대상자 집단별로 바람직한 교육 연한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에서는 유의적인 차이($p < 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교육 관계자들에서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졸업생들은 65.1%, 학생과 영양사들은 각각 56.5%와 56.1%로 나

타났다. ‘2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영양사들에서 36.6%로 가장 높았으며 졸업생이 17.1%, 학생이 16.8%, 교육 관계자들은 13.3%로 나타났다. 따라서 ‘3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학생과 영양사들보다 교육관계자들과 졸업생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관계자들이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업시간의 부족을 더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며 학생들은 받아들이는 입장이므로 심각성을 덜 느끼고 또한 수업시간의 증가와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요약 및 결론

전문대학 식품영양 관련과의 3년제로의 학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학생과 졸업생, 영양사와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식품영양관련과의 3년제로의 교육 연장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교육 연한 등의 인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식품영양 관련과의 현 2년제 교육 연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52.1%의 조사 대상자들이 ‘짧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 교육 관계자, 영양사, 졸업생 등의 대상자 집단별로 교육 연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교육 관계자들이 교육 연한의 부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 집단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2. 전문대학 식품영양 관련과의 3년제로 교육 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3년제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전체의 49.3%로 나타났다. 대상자 집단별로 교육 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을 때에도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교육 관계자(45.7%)와 영양사 집단(43.5%)에서 학생(23.0%)과 졸업생(21.5%)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 대상자 집단별로 유의적인 차

Table 7. The recognition on the desirable period of education of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N(%)

Variable	Student(N=209)	Professor(N=90)	Dietitian(N=41)	Graduate(N=146)	Total(N=486)	p-value
2 yrs	35(16.8)	12(13.3)	15(36.6)	25(17.1)	87(17.9)	
2.5 yrs	18(8.6)	3(3.3)	1(2.4)	13(8.9)	35(7.2)	
3 yrs	118(56.5)	70(77.8)	23(56.1)	95(65.1)	306(62.9)	0.0002
Not sure	31(14.8)	1(1.1)	1(2.4)	11(7.5)	44(9.1)	
No answer	7(3.4)	4(4.4)	1(2.4)	2(1.4)	14(2.9)	

N : Number of the subjects.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3. 교육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2년으로는 필요한 식품영양 관련 지식을 공부하거나 실습하기에 너무 짧다'라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상자들의 상당수는 식품영양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집단별로 교육 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교육 관계자들은 학생과 졸업생들보다 '영양사 자격 시험 준비'보다는 '필요한 지식 공부와 실습'에 필요한 시간이 더 모자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 집단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4.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바람직한 교육 연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대상자의 62.9%가 '3년'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하였으며 대상자 집단별 교육 연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3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학생(56.5%)과 영양사들(56.1%)보다 교육 관계자들(77.8%)과 졸업생(65.1%)에서 더 높게 나타나 대상자 집단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이상의 결과로 살펴볼 때 전문대학 식품영양 관련과의 교육 연한의 부족과 교육 연장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학생과 졸업생들보다 교육 관계자들과 영양사들이 더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대학 2년제 식품영양과의 영양사 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영양사 면허 취득률 향상, 현장 실무교육 비중 증가,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 등을 위해서 3년제로의 학제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2년도 계명문화대학의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So, MH, Yoon, SS and Nam, KS. A study on the modification and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th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 Junior college. *Korean J. Food & Nutr.* 4:9-20. 1991
2. Cha, JA. Job characteristics and competencies of dietitians in employee food service by worker oriented job analysis methodology. Yonsei University Dissertation. pp.110-121. 1997
3. 차진아. 급식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영양사 직무특성제고 및 역할 개발. 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회지. 1:39-62. 1999
4. Shanklin, CW and Dowling, R. Opportunities in commercial food service-the members perspective. *J. Am. Diet. Assoc.* 95:236-238. 1995
5. National health persona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2004
6. 김경주. 일본의 임상영양사. 국민영양. 4:10-15. 1994
7. 이영순. 식품영양과 교육과정의 개선. 계명문화대학 교육연구논집 창간호. pp.109-118. 계명문화대학. 1996
8. 권순형. 외국의 영양사제도와 앞으로의 전망. 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회지. 1:25-38. 1999
9. 손정숙. 21세기 영양사직 발전방향. 국민영양. 7,8: 12-19. 1998
10. So, MH, Yoon, SS, Nam, KS and Cho, SH. A study on the enlargement of course in life for the graduates of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 Junior college. *Korean J. Food & Nutr.* 2:73-83. 1989
11. Jang, SK. 한국식품영양학회 제 3회 학술심포지움. 1990
12. Yang, IS and Cha, JA. Work analysis and time measurement of dietitians in employee feeding facilities by work sampling methodology. *Korean J. Dietary Culture.* 11:673-681. 1996
13.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활성화를 위한 전문대학교육혁신 2005(안). pp. 10-1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2
14. 부천대학 식품영양과.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연구 보고서. pp.1-36. 2000